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의 分析

金 昌 鎬 *

목 차

- I. 머리말
- II. 전문의 소개와 해석
- III. 지명 등의 검토
- IV. 등루기에 나타난 불교
- V. 이재의 역사적 위치
- VI. 맺음말

< 요 약 >

《동문선》 권 64에는 신라말 최치원이 지은 「신라수창군호국성8각등루기」가 실려 있다. 이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에서는 등루기의 주인공인 이재를 대구지역의 호국으로 보아 왔다. 여기에서는 선학들의 연구성과, 역사지리적인 접근, 불교사에 대한 기본상식 등을 근거로 전문의 제시와 함께 이를 해석하였다.

등루기에 나타난 지명 등의 위치를 고고학적 측면에서 현지 답사를 근거로 새로 비정하였다. 그것은 호국성의 위치가 대덕산성이고, 8각등루는 대덕산성의 안지랭이 골에서 출발한 대덕산성의 산정 근처에 위치하며, 埧維를 땅으로 해석하여 달불성의 위치가 달성공원이고, 마정계사는 현재의 송림사임을 밝혔다.

등루기에 나타난 불교에 대해서는 간단히 검토하였다. 등루기에 나오는 승려들의 대부분은 동화사 출신이고, 법상종 계열의 승려로 보았다. 9세기말에 대구 지역에 법상종의 사찰들이 있었음은 새롭게 확인한 부분이다.

이재의 역사적인 위에서 최치원이 최후까지 신라에 충성을 다하는 지식인이었고, 이재 또한 그러한 유형의 관리이므로 최치원은 이재를 통해 자신의 신라를 향한 애국심을 쓴 것이 본 등루기라고 해석하였다.

*慶州大學校 文化財學部 교수

I. 머리말

통일 신라말 대구 지역의 지배층에 대한 자료는 《三國史記》 등의 문헌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 신라말의 대학자인 崔致遠이 효공왕 13년(909)에 지은¹⁾「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에 잘 표현되어 있다.²⁾ 이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부터 이에 대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異才를 6두품 신분으로 수창군 태수로 파견되었다가 호족으로 변신한 것으로 보는 가설이 나온 바 있고³⁾, 羅末에 성장한 豪富層이 자위 무장 조직을 갖추는 하나의 사례로서 언급되기도 하였다.⁴⁾

그 뒤에 그의 정치적 성향이 친신라적이었음을 지적되기도 하였고,⁵⁾ 이에 관한 전론이 나오기도 하였다.⁶⁾ 이 전론의 논조는 고고학적인, 불교사적인 견해의 차이가 많아서 등루기를 다시 분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등루기의 전문과 해석을 제시하고, 이를 발판으로 지명 등의 검토를 하겠으며, 다음으로 등루기에 나타난 불교에 대해 살펴보겠으며, 그 다음으로 이재의 역사적 위치를 최치원의 신라에 대한 역사 의식을 토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전문의 소개와 해석

天祐五年戊辰冬十月 護國義營都將重關黎異才 建八角燈樓于南嶺 所以資國慶而攘兵燹也 俚語曰 人有善願 天必從之 則知願苟善焉 事無違者 觀夫今昔交質 有無相生 凡列地名 盖符天意 是堡兌位有塘號佛佐者 巽隅有池號佛體者 其東又有別池號天王者 坤維有古城稱爲達佛 城南有山

1) 종래에는 효공왕 12년(908년)으로 보아왔으나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효공왕 13년(909년) 11월 4일 이후로 판단된다.
 2) 원문은 《東文選》 卷 64에 실려 있다.
 3) 尹熙勉, 1982, 〈新羅下代の 城主・將軍〉 《韓國史研究》39.
 李純根, 1987, 〈羅末麗初 '豪族' 용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聖心女子大學論文集》 19.
 4) 蔡雄錫, 1986, 〈高麗前期 社會構造와 本貫制〉 《高麗史의 諸問題》, p.347.
 5) 李文基, 1995, 〈통일신라시대의 대구〉 《大邱市史》 1.
 金潤坤, 1995, 〈大邑中心의 郡縣制度 整備와 大丘縣의 變遷〉 《大邱市史》 1.
 李泳鎬, 1995, 〈佛敎의 隆盛과 大邱〉 《大邱市史》 1.
 6) 李文基, 1995, 〈新羅末 大邱地域 豪族의 實體와 그 行方 -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의 分析을 통하여〉 《鄉土文化》9・10.

亦號爲佛 名非虛設 理必有因 勝處所與 良時斯應 粵有重闕絜者 偉大夫也 乘機奮志 嘗逞雋於風雲 易操修身 冀償恩於水土 豹變而併除三害 蛇盤而益慎九思 既能除剗荊榛 爰必復歸桑梓 所居則化 何往不諧 遂乃銓擇崇丘 築成義堡 臨流而屹若斷岸 負險而轟如長雲 於是乎靜守西畿 對從南畝 按撫安土 祗迓賓朋來者如雲 納之似海 使憧憧有託 能櫛櫛無辭 加以志切三歸 躬行六度 頓悟而朝凡暮聖 漸修而小往大來 皆由貶己若讎 敬僧如佛 常營法事 靡碍他緣 實綻火中之蓮 獨標霜下之桂 況乎令室 素自宜家 四德有餘 一言無失 風聞玉偈 必託于心 日誦金經 不離於手 是乃用慈悲爲鉛粉 開智慧爲鏡輪 嘉聲孔彰 衆善普會 古所謂不有婦 焉有此夫者 闕絜 眞是在家大士 蔚爲奉國忠臣 以般若爲干戈 以菩提爲甲冑 能安一境 僅涉十秋 氣高者志望偏高 心正者神交必正 乃以龍年羊月庚申夜 夢於達佛城北摩頂溪寺都一大像 坐蓮花座 峻極于天 左面有補處菩薩 高亦如之 南行於溪澗 見一女子 因訊睟容所以然 優婆夷答曰 是處是聖地也 又見城南佛山上 有七彌勒像 累體蹈肩 面北而立 其高柱空 後踰數夕 復夢於城東獐山 見羅漢僧披毳衣 以玄雲爲座抱膝 面稱可其山口云 伊處道(殉命興法之列士也)由此地領軍來時矣 泊覺 乃念言曰 天未悔禍 地猶容奸 時危而生命皆危 世亂而物情亦亂 而我偶諧先覺 勉慎後圖 今得魂交異徵 目擊奇相 輒覬裨山益海 寧慙撮壤導涓 決報君恩 盖隆佛事 所願不生冥處 遍悟迷群 唯宜願舉法燈 亟銷兵火 爰憑勝概 高躬麗譙 蒸以銀鈿 鎮於鐵甕 永使燭龍開口 無令燧象焚軀 其年孟冬 建燈樓已 至十一月四日 邀請公山桐寺弘順大德爲座主 設齋慶讚 有若泰然大德 靈達禪大德 景寂禪大德 持念緣善大德 興輪寺融善呪師等 龍象畢集 莊嚴法筵 妙矣是功德也 八觚之△九光 五夜之中四炤無幽不燭 有感必通 則阿那律正炷之緣 維摩詰傳燈之說 宛成雙美 廣示孤標者 闕絜之謂矣 錠光如來 忉利天女 前功不弃 後世能超者 賢耦之謂矣 愚也尋蒙遙徵拙文 俾述弘願 遂敢直書其事 用警將來 且道叶忘家 功斯永立 城題護國 名亦不誣 德既可誇 詞無所嫌者爾

天祐 五年 戊辰年 冬十月에⁷⁾ 護國義營都將重闕絜인 異才가 南嶺에 八角燈樓를 세웠다. 국가의 경사를 빌고 전쟁의 화를 물리치기 위한 까닭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이 착한 소원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이를 따른다.』고 하였으니, 곧 만일 원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면 본시 어긋나는 법이 없을 것이다. 지금과 옛 일을 서로 대조해 보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나

7) 908년 10월을 가리킨다.

타난다. 모든 땅이름을 붙인 것은 대개 하늘뜻과 부합되는 듯하다. 이 堡의 서쪽에 못이 있어 佛佐라 하며 동남방 모퉁이에 佛體라는 못이 있고 그 동쪽에 또 따로 天王이라는 못이 있으며 坤維에⁸⁾ 옛 성이 있는데 이것을 達佛이라 하고 성의 남쪽에 산이 있는데 또한 佛이라 한다. 명칭이 아무렇게나 생긴 것이 아니요 이치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환경이 이렇게 좋은 것은 좋은 시기와 서로 맞게 된다. 重關絜은⁹⁾ 훌륭한 大夫다. 기회를 이용하여 뜻을 발휘하여 일찍 風雲속에서 그의 민활한 역량을 시험하였고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여 몸을 수양하며 水土에서 은혜 값을 생각을 가졌다. 범처럼 나타나서 국가를 해치는 자들을 숙청하던 몸으로 뱀처럼 도사리고 들어앉아서 더욱 인격의 수양을 쌓았다. 이미 나쁜 무리들을 제거하였으니 곧 반드시 시골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살고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감화할 터인 즉 어디로 간들 좋지 아니하리오, 드디어 곧 높은 언덕을 택하여 그곳에 義堡를 쌓았다. 강물 위에 높이 서서 끊어진 절벽과 같으며 험한 산을 등지고 우뚝한 것은 긴 구름과 같다. 都城의 서쪽을 지키며 한편 농사에 종사하였다. 찾아오는 사람이 구름 같이 모였으나 그들을 받아들이는 아량은 바다 같이 넓었다. 가령 복잡한 부탁이 있을지라도 모두 힘을 다하여 주고 말이 없었다. 더구나 불교에 뜻을 두고 친히 공부를 닦았다. 頓悟하면 아침에 범인이었던 것이 저녁에 성인이 되며 漸修하면 조금씩 전진하며 크게 발전한다. 모두 자신에 대하여는 원수처럼 책망하며 중을 공경함에는 부처님처럼 받들었다. 언제나 불법의 일을 마련하였고 다른 인연에는 구애되지 않았다. 실로 불(火)속에 연꽃이 핀 것이요 서리 속에 계수(桂)가 솟아오른 것이다. 더구나 그의 부인은 평소부터 훌륭한 아내였다. 네 가지 덕이 남음이 있고 한 마디 말도 실수가 없었다. 염불 소리를 듣고 난 뒤로는 마음을 거기에 의탁하였다. 날마다 불경을 읽으며 손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이리하여 화장품 대신 자비를 베풀었고 경대 대신에 지혜를 열었다. 훌륭한 소문이 더욱 퍼져서 여러 사람의 칭찬이 널리 전했다. 옛말에, 『이 아내가 없었다면 어찌 이런 남편이 있으랴』함과 같다. 알찬은¹⁰⁾ 집에 들어앉아 있는 大士이며¹¹⁾ 위대한 나라를 받드는 충신이다. 불법을 무기로 삼고 진리를 甲冑로 삼았다. 능히 한 경내를 편히 하여서 겨우 十년이 되었다. 기운이 높은 자는 志望이 치우치게 높고 마음이 바른 자는 정심

8) 大地란 뜻으로 뒤의 본문 참조

9) 異才를 가리킨다.

10) 異才를 가리킨다.

11) 범어를 음역한 것으로 보통 불·보살의 통칭. 그 예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卷4, 開城府上, 佛宇, 王輪寺조에 「在松岳山麓 高麗爲大刹 成倪詩 傑閣荒涼, 不見僧 黃金大士獨峻燿…」가 있다.

사림이 반드시 바르다. 그러므로 龍年(=巳年) 洋月(=未月) 庚申日¹²⁾ 밤에 꿈을 꾸었는데, 達佛城 북쪽 摩頂溪寺에¹³⁾ 있는 都一大 불상이¹⁴⁾ 앉은 蓮華坐가 하늘끝까지 솟고 좌편에 있는 補處菩薩¹⁵⁾ 높이도 역시 그러하였다. 남쪽으로 가다가 시냇가에 이르러 한 여자를 보고 불상이 저렇게 되는 이유를 물으니 그 優婆夷가¹⁶⁾ 대답하기를, 『이곳은 거룩한 지역입니다.』하였다. 보니 성 남쪽에 있는 佛山 위에 七기의 彌勒像이 몸을 포개고 어깨를 뺏으며 북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다. 뒤에 며칠 밤을 지난 뒤에 다시 꿈을 꾸었는데, 성의 동편 獐山에 羅漢僧이¹⁷⁾ 털옷을 입고 검은 구름 위에 앉았는데 무릎을 안고 얼굴로 可其山의 어구를 보고 말하기를, 『伊處道가¹⁸⁾ 이곳을 경유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라.』 하였다.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하기를, 『하늘이 내리는 화가 아직 끝나지 않고 땅은 오히려 간악한 무리를 허용하는구나. 시국이 위태하면 생명이 모두 위태하며 세상이 어지러우면 인심도 어지러운 법이다. 내가 우연히 먼저 깨닫게 되었으니 이에 대책을 신중히 세워야 할 것이다. 나의 혼은 이상스러운 징조에 접하였고, 눈으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였다.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많은데 어찌 미약한 힘을 쓰기를 부끄러워 하리요.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결심함은 불사를 높이는 것이다. 바라기는 어두운 곳이 생기지 아니하여 두루 미혹한 무리를 깨우치게 하려면 마땅히 法燈을 높이 달아서 빨리 병화를 없애는 것이다.』고 하였다. 경치좋은 곳을 택하여 높이 누각을 세우고 등불을 켜서 철옹성을 지키며 영원히 불등이 빛을 발하여 적병의 침략을 방어하게 하였다. 그 해 첫겨울에 燈樓를 세우고, 십일월 사일에¹⁹⁾ 이르러 公山桐寺의 弘順大德을 맞이하여 座主를 삼고, 齋를 베풀어 慶讚하였다. 泰然大德, 靈達禪大德, 景寂禪大德, 持念緣善大德, 興輪寺의 融善呪師 등의 고승들이 다 모여들어 법회를 장엄하게 하였다. 묘하도다. 이 공덕이여, 八각등의 아홉 가지 광채가 밤중에 사방으로 비치어 깊숙한 곳이라도 비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감동한 바가 있으면 단드시 통하였다. 이것은 阿那律이²⁰⁾ 등심지를 바꾸던 인연

12) 909년 6월 26일(음력)으로 판단된다.

13) 현재의 칠곡에 있는 松林寺로 보인다.

14) 어느 불교 사전에도 보이지 않으나 전후 관계로 보아 미륵불로 판단되며, 모든 것에서 제일 위대한 불상으로 해석하는 쪽이 타당한 듯하다.

15) 진표의 범상중에서는 주존인 미륵불의 보처보살로 관세음보살을 들고 있다.

16) 범어로 在家 女子 신도.

17) 阿羅漢의 준말로 부처님의 제자를 뜻한다.

18) 목숨을 희생하여 불법에 순교한 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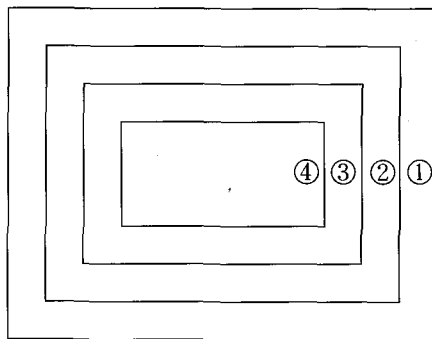
19) 909년 11월 4일을 가리킨다.

20)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하나로 처음에는 맹인이었으나, 나중에 天眼第一이 되었다.

과 維摩詰²¹⁾이 등불을 전하던 이야기에, 『두 가지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이루며, 널리 뚜렷한 표적을 나타내었다.』함은, 闕絜을 가리킨 말이라 할 것이며, 『錠光如來²²⁾와 忉利天女²³⁾는 과거의 공을 잊지 아니하여 후세에서 능히 초월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의 어진 부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나는 멀리서 글을 지어 거대한 소원을 시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드디어 사실을 바로 써서 사람을 경계하며 또한 도를 위하여 가정을 잊었으므로 공적이 마침내 영원히 서게 되었다. 성의 이름을 護國이라 하였으니 그 명칭의 의미가 속일 수 없을 것이며, 덕이 이미 자랑할 만한 것이므로 문장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리로다.

Ⅲ. 지명 등의 검토

등루기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동시에 지명과 등루의 위치를 응변적으로 말하여 주는 것으로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라는 제목을 들 수가 있다. 신라 속에 수창군이 있고, 수창군 속에 호국성이 있고, 호국성 속에 팔각등루가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를 알기 쉽게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신라 ②수창군 ③호국성 ④팔각등루

그 뒤에 팔각등루를 南嶺에 세웠다고 한다. 대구 분지에 있어서 남령의 위치가 어디일까? 남령이란 고개는 분명히 호국성 안에 있으며, 동시에 대구분지의 남쪽에 있음은 분명하다. 대

21) 유마거사를 가리킨다.

22) 과거 25불 가운데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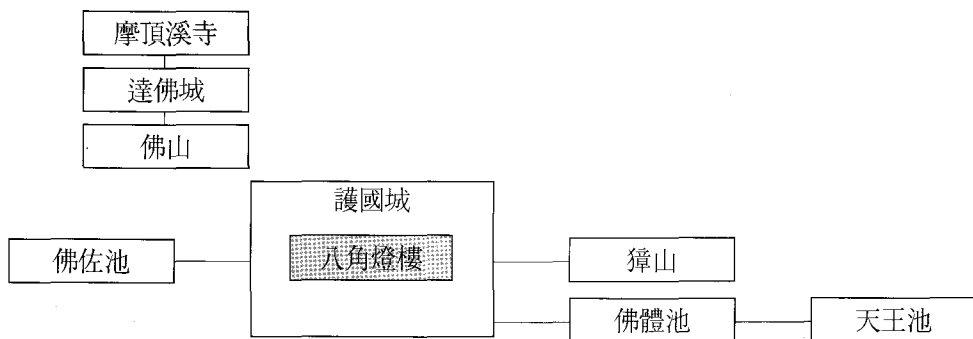
23) 도리천에 사는 天女를 가리킨다.

구분지에 있어서 남쪽 지역의 산성으로서 등루를 그 안에 세울 수 있는 산성으로는 대덕산성 밖에 없다. 대덕산성의 범위 안에는 고갯길이있어서 위의 등루기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호국성은 대덕산성으로²⁴⁾ 사료된다.

호국성의 서쪽에 뚝이 있는데, 이것을 佛佐라 하며, 동남쪽으로는 佛體라는 못이 있고, 그 동쪽에 또 따로 천왕이라는 못이 있으며, 坤維에 옛 성이 있는데 이것을 達佛이라 하고, 성의 남쪽에 산이 있는데 또한 佛이라 한다.

위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坤維의 해석이 문제이다. 종래 서남방을 해석한 견해도 있다.²⁵⁾ 坤維는 諸橋轍次 등, 1984, 《廣漢和辭典》上, p.693에 '땅을 받치는(지탱하는) 큰 밧줄 또는 서남의 방각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諸橋轍次, 《大漢和辭典》2, p.161에는 '땅을 지탱하는 큰 밧줄, 땅의 줄거리(대강), 地維 又 大地又西南'이라고 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是堡兌位有塘號佛佐者, 巽隅有池號佛體者 其東又有別池號天王者 坤維有古城稱爲進佛」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兌位……佛佐者, 巽隅……佛體者, 其東……天王者로 방향의 표시된 문장에서는 못 이름 다음에 반드시 者자가 나오고 있다. 坤維 뒤에는 者자가 없다. 그렇다면 坤維란 西南이란 뜻이라기 보다는 '大地(땅)'란 뜻으로 분석된다.

본문에 보면 달불성의 북쪽에는 摩頂溪寺가 있고, 뒤쪽에는 달불성의 남쪽에 佛山이 있고, 호국성의 동편에 獐山이 있고, 可其山도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를 알기쉽게 도시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24) 金潤坤, 1995, <앞의 논문>. 남령은 안지방골에서 앞산의 대덕산성으로 이르는 길의 정상 부분을 가리킨다고 사료된다.

25) 李文基, 1995, <앞의 논문> (전론), p.16.

IV. 등루기에 나타난 불교

등루기에 있어서 불교와 관련된 구절로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다. 곧 그해 첫 겨울에 燈樓를 세우고, 11월 4일에 公山桐寺의 弘順大德을 맞이하여 座主로 삼고, 齋를 베풀어 慶讚하였다. 泰然大德, 靈達禪大德, 景寂禪大德, 指念緣善大德, 輿輪寺의 融善呪師 등이 고승들이 다 모여들어 法會를 장엄하게 하였다.

그해 첫 겨울은 天祐 5年(효공왕 12년, 908년) 冬十月을 가리킨다.²⁶⁾ 公山桐寺²⁷⁾는 八公山 桐華寺를 가리킨다. 동화사는 헌덕왕의 왕자인 心地에게 眞表 永深계열의 占察法이 전수되고, 심지는 팔공산에 동화사란 절을 짓게 된다. 심지에 관한 기록으로는 경문왕 3년(863) 조성된 동화사 비로암 3층석탑 舍利壺의 명문인 「敏哀王石塔記」에 나오는 專知大德 心知가 있다.²⁸⁾ 이 동화사의 석탑은 민애왕이 사망한(838년) 뒤 863년에 경문왕이 민애왕의 복업을 추승하기 위해 조성한 願塔이다. 건립 연대와 왕실의 원탑인 점에서 이 탑의 조성에 참여한 心知는 진표의 간자를 받은 心地와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다.²⁹⁾ 그 당시 동화사는 진표계열의 法相宗이라고 판단된다.

‘公山桐寺의 弘순대덕을 좌주를 삼아 재를 베풀고 慶讚하였다’는 기록에서 弘순대덕 역시 법상종 승려로 판단된다. 弘륜사의 兪선주사도 동화사가 주관하는 재에 참가하고 있다. 弘륜사는 신라 중대 점찰회의 하나인 六輪會가 베풀어진 바 있다.³⁰⁾ 817년 이차돈 무덤의 예불향도를 결성한 弘륜사 永秀禪師도 유가승으로 알려져 있어서 兪선주사도 유가승으로 판단된다.³¹⁾

指念緣善大德은 잘 아는 바와같이 밀교 승려로 보이고³²⁾, 泰然大德, 靈達禪大德, 景寂禪大德의 3승려³³⁾는 모두 동화사 출신의 유가승으로 판단된다.³⁴⁾

26) 등루기 첫부분 참조.

27) 고려시대에는 桐藪라고도 불렀다.

28) 《譯註 韓國古代金石文》3, pp.355~360.

29) 黃壽永, 1969, 〈新羅敏哀大王石塔記〉《史學志》3: 1976, 《韓國의 佛教美術》, pp.228~229.

30) 金南允, 1995, 〈新羅 法相宗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pp.144~145.

31) 金南允, 1995, 〈앞의 논문〉, p.145.

32) 密本, 惠通으로 연결되는 除病系 밀교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하였다.

金在庚, 1976, 〈新羅의 密教 受容과 그 性格〉《大丘史學》14.

徐吉, 1990, 〈高麗 瑜伽·律·神印等 諸宋의 性格과 그 展開〉《韓國史論》20.

33) 등루기에 나오는 禪大德은 유가대덕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다.(金福順, 1988, 〈新羅 下代 華嚴宗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 請求論文, p.128.)

34) 金南允, 1995, 〈앞의 논문〉, p. 145.

‘達佛城 북쪽에 摩頂溪寺에 있는 모든 것에서 제일 위대한 佛像이 앉은 蓮華坐가 하늘까지 높이 올라붙고, 좌편에 있는 補處菩薩도 그러하였다’에 있어서 보처보살은 흔히 관음보살을 가리키고 있으며³⁵⁾ 모든 것에서 제일 위대한 佛像은 어느 부처인지 잘 찾을 수가 없으나 미륵불로 추정되어 마정계사 역시 법상종으로 보인다. 그 뒤에 나오는 ‘성 남쪽에 佛山 위에 7기의 彌勒像이 몸을 포개고 어깨를 밟으며 북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한 문장에서의 미륵상은 미륵불로 볼 수가 있다.

등루기에 나오는 불교는 법상종에 주류이고,³⁶⁾ 太賢계열의 유가종도 있으며, 밀교도 있다. 크게 볼 때 법상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V. 이재의 역사적 위치

종래에 異才에 대해서는 관등이 重關絜이므로 6두품이고, 수창군의 군태수로서 성장한 지방 호족으로 보아 왔다.³⁷⁾ ‘알찬은 집에 들어앉아 있는 불보살이며, 奉國忠臣이다’라고 崔致遠이 파악하고 있어서 신라의 충신임을 쉽게 알 수가 있다. 崔致遠은 등루기 등에서 호국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만약 그가 왕건이나 견훤의 세력을 좇는 반신라적인 인물이었다면, 호국의 영장인 이재가 그에게 등루기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崔致遠 역시 감히 지어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등루기에 이재에 대해 ‘알찬은 진실한 재가보살이다. 홀연히 봉국충신이 되어’ 운운한 것을 보면, 이재를 빌어 자신의 처지를 의탁한 것 같기도 하다.³⁸⁾ 신라의 충신이라면 지방 호족이란 용어를 이재에게서는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등루기를 쓴 崔致遠은 「진감선사비문」(887년)의 첫머리에 ‘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으며, 사람에게는 異國이 따로없다. (道不遠人 人無異國)’고 하였다. 이 말은 崔致遠 사상의 철학적 기반을 이루는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宋儒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八字打開處 바로 그것이라 할 수가 있다.³⁹⁾ 이 말은 인간 본질에 기초한 주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崔致遠은 세상에 대하여 아무 힘을 쓸 수도 없었지만, 신라가 무너져 가는 것을

35) 앞의 주15)를 참조할 것.

36) 진표계열의 법상종이 아닐까하고 짐작되나 단정은 할 수 없다.

37) 대부분 연구자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38) 崔英成, 1999, <崔致遠의 哲學思想 研究-三教顯과 人間主體를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東洋哲學科 博士學位請求論文, p.177.

39) 崔英成, 1999, <앞의 논문>, p.28.

그저 바라만 볼 수 없었고, 더욱이 崔彥擣나 崔承佑처럼 신라를 버리고 왕건이나 견훤에게 붙을 수도 없었다.⁴⁰⁾ 무력하나마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을⁴¹⁾ 기반으로 護國·憂國사상을 고취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니, 이는 崔致遠의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등에 잘 나타나 있다.⁴²⁾ 여기서 우리는 난세를 살았던 한 지성인의 고뇌와 울분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끝까지 신라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崔致遠은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이재를 위해서 등루기를 지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등루기를 지은 것은 아마도 해인사에 은거해 있을 때로 보인다.⁴³⁾

VI. 맺 음 말

지금까지 살펴온 바를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東文選》卷 64에는 崔致遠이 지은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가 실려 있다. 이에 대한 선학들의 많은 연구 성과를 발판으로 먼저 全文과 해석을 실었다.

다음으로 등루기에 나타난 지명 등의 위치를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비정하여서 호국성의 위치가 대덕산성이고, 8각등루는 대덕산성의 고갯길에 있음을 밝히고, 坤維를 大地(땅)으로 보아서 현재의 달성공원인 達佛城의 위치 등도 새로운 각도에서 비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등루기에 나타난 불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등루기에 나오는 승려들의 대부분 동화사 출신이고, 법상종계열로 보았고, 흥륜사 출신의 승려는 太賢계열의 유가종 승려로 보았다. 밀교 승려도 있음을 밝히고, 마정계사도 법상종으로 보았다. 결국 등루기에 나타난 불교는 법상종 승려가 거의 대부분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의 역사적 위치 부분에서는 崔致遠의 철학적인 사상과 신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護國·憂國 정신을 바탕으로 수창군의 이재도 신라에 충신이므로 지방호족과는 관계가 먼 인물로 보았다. 이는 종래 9-10세기의 신라에 있어서 경주 이외의 지역 호족은 무조건 반신라적이고 선종을 신봉했다는 도식적인 역사해석에 대한 반증의 좋은 자료로 해석되며, 선종도 종래의 교종과 마찬가지로 신라 왕실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성장과 발전했다는 최근의 연구성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40) 崔英成, 1999, <앞의 논문>, p.228.

41) 원문에는 화엄 사상이라고 되어 있다.

42) 崔英成, 1999, <앞의 논문>, p.228.

43) 최치원의 은거 생활은 보통 효공왕 2년(898년)으로 보고 있다.

Analysis of the Document Concerning Octagonal Lantern Shaped Pavilion Located in Hoguk Fortification in Soochang County, Silla

Kim, Chang-Ho

The Volume 64 of Dongmun sun (東文選) compiled at the beginning of Yi Dynasty carries the document of the octagonal lantern shaped pavilion compiled by Chi-won Choi, a great scholar in the late Silla Kingdom. In this paper, I showed the entire document of the octagonal lantern shaped pavilion translated and interpreted by many Korean senior scholars.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building. For instance, some have argued the this building was located somewhere around Daegu and unfortunately they were not able to specified the exact location of the building.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location appeared in the document and the present geographic name and the overall topographical appearance of the Hoguk Fortification, the building must have been located specifically in the Daeduk Fortification on top of the Apsan, in Daegu. It is also argued that some monks who took part 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building came from Bubsangjong (法相宗), in North Gyung sang Province. This inference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names and positions of monks appeared in the document and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this means that Bubsangjong already present in Daegu area around the end of the 9th century A.D. In the past, the majority of Korean historians have argued that Je Lee who was the governmental official responsible for the Soochang County was anti-government oriented person. However, if we are taking into consideration both the context of the historical document and the basic personality of Chi-won Choi who was close to Je Lee, it is evident that Je Lee was not anti-Silla but he, like Chi-won Choi, was royal to the Silla Kingdom.